

내수경기 회복으로 유리산업 성장 기대

힘들고 어려웠던 2005년 을유년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희망찬 2006년 병술년 새해의 찬란하게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 태양은 언제나 그랬듯 우리 모두에게 설렘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의 난관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격히 냉각하는 미증유의 시황 속에서 처음 경험해야 했던 시련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국내의 경기불황 등 침체의 늪에서 힘겨운 희생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에서 포장협회가 업계에 더 많은 관심과 헌신, 업계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05년 한해 우리 유리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경기의 불황과 내수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유리업계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극심한 내수부진의 어려움에 시달린 한해였습니다. 특히 유리산업의 특성상 영세성과 높은 인건비, 고유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 등 제반요인에 의해 어려움이 한층 더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값싼 유리제품 때문에 우리 유리산업은 그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병술년 2006년에는 유리업계는 내수경기회복의 기대를 해보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유리산업과 전반적인 국내외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기 회복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내수경기의 회복으로 인해 포장산업 역시 힘찬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포장산업의 발전만큼 포장협회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어느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월간 『포장계』에서도 신속하게 전파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쪼록 월간 『포장계』가 2006년에는 지금까지의 어느 해보다 발전된 모습,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충심으로 바라오며, 업계의 길잡이 매체로 거듭 노력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200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해를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



윤 국 현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